

뉴스 라운드업

- 중동 확전 우려 고조 — 후티 반군 사우디 4 개 도시 공격(부상 73 명)에 이어 미국이 이란 항공부문 등에 신규 제재 36 건 추가, IRGC 는 쿠웨이트·바레인 유조선 타격까지 위협하며 WTI 93.03 달러로 급등(+1.69%)
- 뉴욕증시 3 대지수 동반 하락 — 중동 리스크에 AI·소프트웨어주(세일즈포스 등) 부진까지 겹쳐 다우 -1.18%, S&P500 -0.58%, 나스닥 -0.32% 마감
- 엔화 조강세와 미 국채금리 동반 상승 — 달러/엔 153 엔대 근접 7 개월래 최고치, 미 10 년물 4.792%·2 년물 4.400%로 오르며 베어플래트닝 지속, VIX 도 8.2% 뚫 15.71 기록
- 영국 국채금리 1998 년 이후 최고 — 30 년물 5.8%대 진입, 독일도 국방·인프라 재원 마련 위해 신규 국채 발행 확대 방침 시사

중동 확전 위협에 유가가 뛰고 미 국채금리가 재차 오르며 위험자산이 조정받았다

밤사이 중동확전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시장을 흔들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4 개 도시(카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 아브하·나즈란·자잔의 아람코 관련 시설)를 드론·미사일로 공격해 73 명이 다쳤고, 미국은 이란 항공산업을 겨냥한 신규 제재 36 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어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이 주둔한 쿠웨이트·바레인 항구의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란 국영매체는 미군 정찰드론을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미국 측 확인은 아직 없음). 이 소식들은 대부분 뉴욕증시 마감 전에 알려져 다우존스(-1.18%)·S&P500(-0.58%)·나스닥(-0.32%) 하락에 이미 반영됐고, WTI 는 93.03 달러(+1.69%)까지 올랐다. 다만 IRGC 의 유조선 타격 위협은 뉴욕 마감 직후 나온 소식이라 아직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어제 낮 마감한 코스피(-0.58%)·닛케이(-1.70%)·항셍(-0.38%)·CSI300(-0.36%) 등 아시아 증시의 하락도 그 이전 시점의 유가 상승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간밤의 추가 악재가 비로소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금리는 목요일 생산자물가·금요일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10 년물 4.792%(+0.8bp), 2 년물 4.400%(+2.6bp)로 나란히 올랐다. 2 년물이 10 년물보다 빠르게 오르는 베어 플래트닝 흐름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매파적 채프라이싱과 궤를 같이 하며, 선물시장이 반영하는 9 월 FOMC 인상 가능성이 58~60%대까지 높아졌다는 소식과도 맞물린다. 이는 Fed 가 이미 인상 사이클에 들어선 가운데 인상 지속 기대가 굳어지고 있다는 기존 판단과 부합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크레딧 시장은 상대적으로 잠잠해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268bp 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VIX 는 8.2% 뚫 15.71 을 기록해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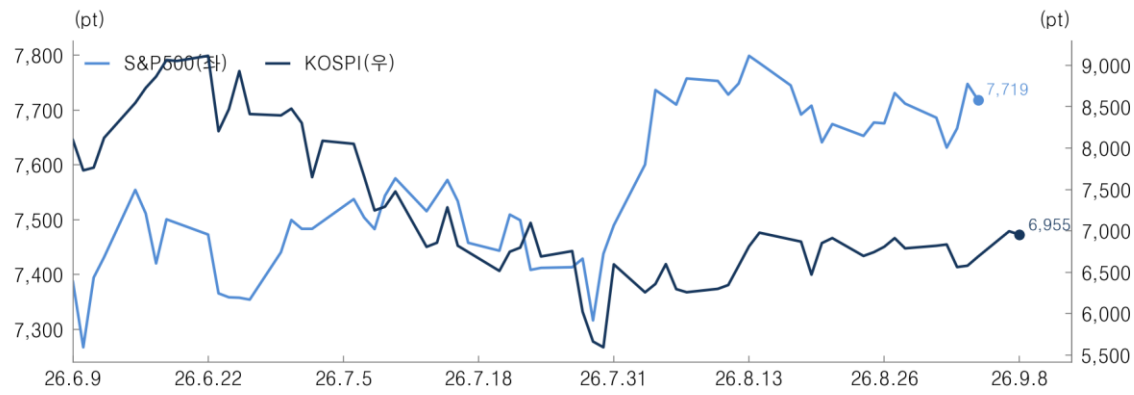
엔화는 달러/엔이 153 엔대로 밀리며 7 개월래 최고치에 근접, 주간 기준으로는 2024 년 7 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기대가 계속 반영되는 모습으로, 최근 논의가 '인상 속도'에서 '인상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정책 스탠스와 궤를 같이 한다. 재정 쪽에서는 영국이 30 년물 국채를 1998 년 비교 가능 통계 집계 이후 최고 금리로 발행하며 재정 부담이 부각됐고, 독일 재무장관도 국방·인프라 투자 재원을 위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2027 년 총투자 규모를 1,175 억 유로(2025 년 789 억 유로 대비 확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무역 전선에서는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200 억달러 규모, 15~50%)가 발표되며 양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신흥국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 브라질 자산은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가 물라를 근소하게 앞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반면, 인도 루피는 유가 급등 여파로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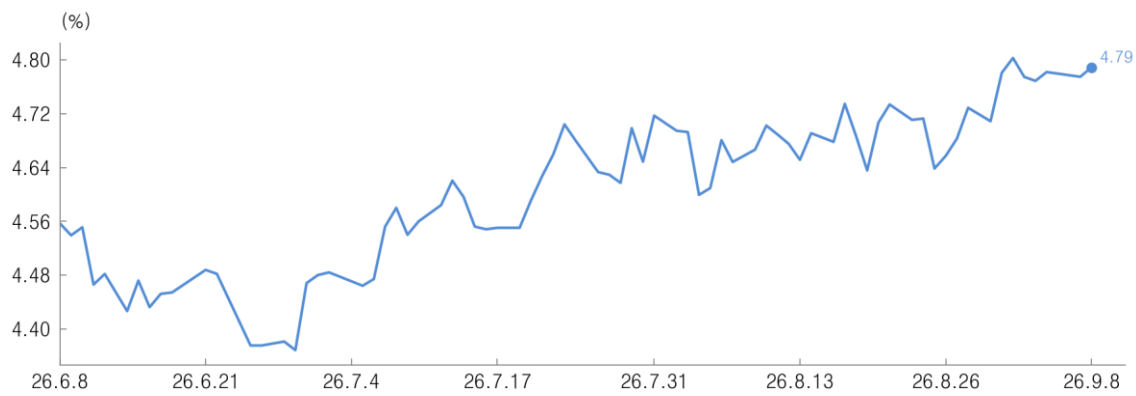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73.52	-0.58%	9/8 종가
	나스닥	26,421.40	-0.32%	9/8 종가
	STOXX 600	649.61	-0.05%	9/8 종가
	닛케이 225	65,269.33	-1.70%	9/8 종가
	CSI 300	4,558.74	-0.36%	9/8 종가
	KOSPI	6,954.52	-0.58%	9/8 종가
	항생	25,317.18	-0.38%	9/8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86	-0.04%	9/8 종가
	달러/엔	153.92	-0.03%	9/9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9 종가
	달러/원	1,339.84	-0.38%	9/8 종가
	달러/위안	6.71	-	9/8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92%	+0.8bp	9/8 종가
	미국 2 년	4.400%	+2.6bp	9/8 종가
	일본 10 년	2.909%	+0.2bp	9/8 종가
	독일 10 년	3.372%	-1.3bp	9/8 종가
	한국 10 년	4.390%	+0.9bp	9/8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8bp	-	9/7 종가
원자재	WTI	93.03	+1.69%	9/7 종가
	금	4,355.08	-1.64%	9/7 종가
	구리	6.82	+2.11%	9/7 종가
변동성	VIX	15.71	+8.20%	9/8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16 건 HIGH	• 후티 공격으로 유가 6 주 고점, 미국 주가 어제 약세 마감 ↳ 브렌트유 배럴당 \$100 근접, 예멘 친이란 후티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시설 공격 ↳ 어제 미국 증시 약세 마감, 다우 -0.85%, S&P 500 -0.38%, 나스닥 -0.42% ↳ 런던 FTSE -0.6%,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 이번 주 미국 소비자물가(CPI) 발표 대기 • 엔화 7 개월 고점, BOJ 다음 주 금리인상 거의 확실 ↳ 주간 4% 강세, 2024 년 7 월 이후 최대 상승폭, USD/JPY·EUR/USD·GBP/USD 동반 약세 ↳ BOJ 다음 주 인상 임박, 시장의 엔화 약세 포지션 청산 심화 • 호주 중앙은행 9 월 인상 논의, AUD·구리 신고점 동반 ↳ RBA 부총재, 9 월 회의에서 인상 필요성 발언, 시장 확률 70% 이상(Westpac 는 11 월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 ↳ 구리 \$14,694/톤 신기록(미국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출입 선반영), AUD/USD 4 개월 고점 진입(단기 과매수권) ↳ ECB 9 월 13 일 인상 거의 확실 • 캐나다 달러 3 주 고점, 무역긴장 속 유가 수혜 우위 ↳ CAD 1.3760(달러당), 보복 관세 시행에도 유가 강세가 무역 약재 상쇄 ↳ Tamarack Valley·Headwater 합병(C\$10 억), Clearwater Formation 최대 상장 유전사로 포지셔닝, 배당 20% 인상(C\$0.06/주) •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스라엘-시리아 갈등, 기업활동 타격 ↳ UN 무역개발회의(UNCTAD), 호르무즈 해협 혼란 영향 중소기업에 가장 심각, 에너지·운송비 급증에 금융 제약으로 공급망 배제 우려 ↳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일부 군사활동에 대해 UN 이 전쟁범죄 가능성 경고
미국 뉴스 42 건 HIGH	• 캐나다, 미국 상품 200 억 달러 대상 보복 관세 발효 — 무역전쟁 18 개월 만의 본격 심화 ↳ 관세율 15~50% 범위 적용, 월마트·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업체 취급 상품 다수 포함 ↳ 마크 카니 총리 "미국과의 경제적 거리 두기" 촉구, 협상 전망 불투명 ↳ 트럼프 신규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로, 2025 년 1 월 이후 반복되는 관세 갈등의 정점 • 美 이란에 36 개 제재 단행, 마한 항공 운항 중단 목표 — IRGC 는 무인기 격추 주장 ↳ 제재 대상 확대: 이란의 다른 항공사, 해외 중개업체, 위장 환적 루트 등 ↳ 미국산 항공기·첨단기술 입수 차단 목표, 중동전쟁 7 개월째 국면 속 경제 압박 강화 ↳ 이란 혁명수비대(IRGC), 타스님 통신 통해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MQ-1 무인기 격추 주장(미국측 공식 확인 없음) • 엔화 지난주 대비 약 5% 급등, 154 엔 돌파 후 152.89 엔 — 외환 변동성 1 년 최고 도달 ↳ 1 개월 내재변동성 11.4% 기록(1 년래 최고), 행사가 150.00 엔 옵션에 수요 집중 ↳ 브렌트유 배럴당 \$98.28(6 주 고점), 중동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유가 압력 확대 ↳ 달러 약세·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엔화 회피처 선호 강화, 캐나다 달러는 보복 관세에 강세 전환 • 美 7 월 소비자신용 +\$180 억, 시장 예상(+\$116 억) 상회 — 신용수요 강세 지속

권역	요약
	• 연방기금금리 선물, 9 월 인상 확률 59% 반영 — PPI(10 일)·CPI(11 일) 발표가 분수령 ↳ 국채 수익률 소폭 상승, 3 년물 경매 수요 강세 ↳ 지난주 예상 상회한 고용지표 이후 금리인상 베팅 증가, 근원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회 시 확률 두 배로 상승 • S&P 500 -0.58% 마감, 세일즈포스·서비스나우 등 소프트웨어 업체 4~5% 낙폭 ↳ 다우 -1.18%, 나스닥 -0.32% ↳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OpenAI GPT-6 출시로 AI 경쟁 심화, 기술주 수익성 압박 • 트럼프-푸틴 전화 통화, 우크라이나 전쟁 "조속 종료" 및 미-러 관계 정상화 논의 ↳ 크렘린궁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 발표(미국측 공식 입장 미발표) ↳ 위코프·쿠시너 미국 평화특사의 모스크바·키이우 주말 방문 결과 논의, 양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크렘린궁 공시 • 美 보안기관, 딥시크·문샷 AI 등 중국 AI 기업의 미국 모델 "악의적" 복제 지적 ↳ 증류(distillation) 기법으로 고가 학습 비용 회피, 저비용 경쟁 추정 ↳ 美 고급 AI 모델의 저가 경쟁 가능성으로 시장 우려 제기 • 뉴욕 연준 8 월 조사, 1 년 후 실업을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 예상 ↳ 소비자물가 기대 3.6% 유지(전월 변화 없음), 고용 약화 신호 ↳ 개인재정·일자리 시장 우려 증가 추세 • 루비오 국무장관,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와 "견고한" 무역협정 조속 타결 방침 ↳ 라틴아메리카 지역 영향력 회복 의도,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계 개선 논의 ↳ 해당 지역 미국산 수출 확대 기대
유럽 뉴스 28 건 HIGH	• 유럽 국채 수익률 다년 고점...영국 30 년물 1998 년 이후 최고 ↳ 영국 30 년물 국채 £42.5 억 발행 시 수익률 5.8% 이상(1998 년 비교 시작 이후 최고), 신임 John Healey 재무부장관의 첫 예산 편성에 부담 가중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36%(15 년 고점, 2011 년 4 월 이후 최고), 2 년물도 2.98% 수준(2 년 고점) ↳ 글로벌 차입비용 급등·에너지 가격 고공행진·독일 정치 불확실성이 유로존 국채 수익률 상승의 배경 • 독일 '국방 없이 신규 채무 불가피'...2027 년 투자 49% 확대 ↳ 재무부장관 Lars Klingbeil 이 2027 년 예산안을 의회 하원에서 옹호하며 신규 채무 필요성 강조('달에 로켓 없이 날아갈 수 없다' 비유) ↳ 국방·인프라 투자 규모 2025 년 €789 억 → 2027 년 €1,175 억으로 확대(49% 증가) ↳ 러시아發 위협 심화가 배경 • BoE 금리 인상 필연성 부정...다음 주 3.75% 동결 방향 ↳ Andrew Bailey 총재가 의회 재무위 증언에서 금리 인상을 필연이 아닌 선택지로 언급, 필연성을 명확히 부정 ↳ Ramsden 부총재는 국내 인플레이션 '온건함' 평가, Megan Greene 은 유가 고공행진의 파급 우려, Alan Taylor 는 현 금리의 외부 리스크 '보험' 역할 강조 ↳ 다음 주 3.75% 동결 예상(이코노미스트 조사 65 명 중 57 명 동결 예상), 파운드 \$1.3529 로

권역	요약
	0.12% 하락 • EU, 중국과 무역 불균형 협상…10 월 초 초기 조치 요구 ↳ EU 무역위원 Maros Sefcovic 이 10 월 초까지 중국의 초기 조치 이행 기대 발표 ↳ 중국의 2025 년 EU 무역흑자 €3,606 억(2024 년 대비 15% 증가), 2026 년 상반기도 9% 증가 추세 • 이탈리아 은행 세금 부과 추진·프랑스 에너지 노조 파업 예정 ↳ 이탈리아 League 당, 은행에 €20~30 억 세금 부과 제안(5% 이윤세) …연립정부 파트너 Forza Italia 의 반발 예상 ↳ 프랑스 에너지 노조, 9 월 9 일(화요일) 파업 예고…프랑스 감사원의 임금 인상 제한·할인 가스·전력 축소 권고안에 반발 • 후티 공격으로 유가 급등…유럽 증시 약보합 ↳ 예멘 후티의 사우디 에너지시설 공격으로 브렌트유 배럴당 99 달러 근처 급등 ↳ STOXX 600 보합권, FTSE 100 0.1% 하락, FTSE 250 0.64% 하락…Novartis 는 신약 개발 실패로 사상 최대 낙폭 기록
중국 뉴스 2 건 HIGH	• 이란 위협·후티 공격으로 유가 \$100 근처까지 상승, 신흥시장 자산 약세 ↳ 브렌트유 +2.4% 상승으로 수주 만에 최고점 경신, 중동 지정학 리스크(이란 '경제전쟁' 언급, 사우디 에너지시설 공격)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 신흥시장 주가·환율 동반 약세 — 위험자산 회피 심화 ↳ 중국 8 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 기록 — 신흥시장 전반 약세 기조와 대조 • 홍콩거래소, 위안화 헤징 도구 확대로 Swap Connect 활용 증가 ↳ 중국 단기금리 벤치마크인 FDR007(7 일물 예금기관 환매조건부채권 고정금리)을 Swap Connect 참조금리에 연말까지 추가 — HKEX 마켓부문 대표가 상하이 행사에서 공식 발표 ↳ 해외 투자자의 위안화 자산 헤징 수요 증대에 대응한 조치로 Swap Connect 거래 활성화 기대
일본 뉴스 4 건 HIGH	• 엔화 7 개월 고점 진입에 BOJ 9 월 금리인상(1.25%) 80% 시장 평가 반영 ↳ 지난주 이후 약 5% 상승, 2 월 이후 최강 수준(1 달러 153 엔 이하) 진입 ↳ 본국송금 수요 증가, BOJ 금리인상 기대, 투기적 엔화 약세 포지션 청산이 강세 견인 ↳ 임금이 약 30 년 만에 최고인 4.7% 상승, 금리 인상 근거 강화 • 일본 당국 엔화 추가 개입 우려 높음, 지난여름 대규모 개입 이력과 재개입 가능성 ↳ 지난여름 대규모 엔화 매입 개입 이력, 이번 급등에서 당국 재개입 가능성에 시장 경계 고조 ↳ 다만 본국송금·투기 포지션 청산 등 구조적 요인이 주도해 당국 개입 필요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달러, 주요통화 대비 보합권 유지, 유가(6 주 고점)·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투자심리 억제 ↳ 이란 위협으로 유가 강세 지속, 미국 소비자물가(CPI) 발표 대기 ↳ 캐나다 달러는 미국의 보복 관세 발동에 강세 전환
인도 뉴스 6 건 HIGH	• 중동 긴장으로 유가 \$100 근접, 인도 주가 1.8% 하락·통화 7 월 말 이후 최대 약세 ↳ 예멘 후티군의 사우디 에너지 시설 공격·이란의 미국을 향한 '경제전' 위협으로 브렌트유 배럴당 \$100 근접까지 급등 ↳ 니프티 50 지수 종장 경매 세션에서 최대 1.8% 하락, 8 월 3 일 신규 도입된 종장 경매

권역	요약
	메커니즘(종가 설정용 경매 절차)이 주간·월간 파생상품 만기일의 변동성 확대 ↳ 인도 루피 94.8175/달러로 0.35% 약세, 3 거래일 연속 유가 상승 가운데 7월 말 이후 최대 낙폭 • 인도 국립증권거래소 상장 공모가 1,700~1,785 루피 대역으로 결정 ↳ 공모 지분 원래 계획 6%에서 5.5%로 축소 예정 • 인도 8월 연료 수요 -6.3%, 2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 8월 연료 소비량 18.61 백만톤으로 7월 대비 -6.3%, 2024년 9월 이후 최저 ↳ 전년 동기 대비 -2.8% ↳ 정부 산하 연료소매업체, E20 휘발유 품질 테스트 결과 고염화물·수분 오염 증거 없음 발표 • 2분기 7.8% GDP 성장률, 통계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 지속 ↳ 전직 고위 관료가 NDTV 방송에 출연해 공식 통계를 데이터 조작이라고 지적 ↳ \$4조 규모 인도 경제의 실제 성장 속도가 공식 수치에 부응하는지를 둘러싼 소셜미디어·방송 논쟁 중
남미 기타 뉴스 5 건 HIGH	• 칠레 8월 월간 소비자물가 +0.6%, 시장 예상(+0.3%) 상회 — 4월 이후 최고 수준 ↳ 7월 +0.1%에서 급가속, 13개 부문 중 9개 가격 인상 — 식료품·비알코올 음료(+1.4%) 주도 ↳ 연간 기준 +4.1%로 중앙은행 목표(2~4%) 초과,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제약 ↳ Scotiabank, 엘니뇨 현상 시 식료품 물가 상방 리스크 경고
EM 기타 뉴스 14 건 HIGH	• 이란-후티 갈등 고조 — 쿠웨이트·바레인 유조선 표적 위협, 사우디 4개 도시 공격으로 유가 반등 ↳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이란 유조선 공격에 대응해 쿠웨이트·바레인 항구에 정박한 미국 관련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 — 승무원 대피 지시 ↳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09/08 사우디 남부 4개 도시(Khamis Mushait, Abha, Najran, Jazan) 동시 공격 — 드론·미사일로 아람코 시설 및 군사기지 피격, 부상 73명 이상, 자잔 정유시설에서 검은 연기 포착(NASA 위성 촬영) ↳ 사우디 경내 군사시설 공격이 예멘 전장의 지역적 확대로 평가되며, 브렌트유는 7월 24일 이후 최고가 기록 •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사 Metinvest 채권 급락, 러시아 미사일로 주요 제철소 생산 중단 ↳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업체 Metinvest의 국제 채권이 09/08 4.4센트 낙폭 기록 — 2022년 러시아 침략 이후 최대 수준 ↳ 동사 카메트 스틸 공장(동부 드니프로 지역)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직격 — 5명 사망, 전체 생산 중단 — 현재 우크라이나 통제 제철소는 2곳뿐 •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러시아 공급으로 0.4~0.6% 포인트 상향 압력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부총재는 러시아의 집중 공급(기업·물류센터·에너지 인프라 타격) 및 흑해 사실상 봉쇄로 인플레이션에 0.4~0.6% 포인트 상향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강조 ↳ 중앙은행은 2026년 연말 소비자물가를 약 10% 수준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연간 270억달러 방어예산 확보를 위해 11월까지 동맹국의 재정 결정 촉구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방어 컨택트그룹(Contact Group)' 회의에서 자금 지원이 없으면 계획도 실행 불가능하다고 강조

권역	요약
	• 세네갈, 35 억달러 연체금 정리 필수 — IMF 협의 하에 220 억달러 차입 합의 ↳ 세네갈 총리는 09/08 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19.56 조 CFA 프랑(35 억달러) 연체금 상환이 필수라고 강조 — 경제활동 정체 및 고용 악화 우려(2025 년 3 월 기준) ↳ IMF 와 지난주 220 억달러 규모 3 년 차입안(협상 단계 합의) 체결 — 이전 IMF 프로그램은 2024 년 회계 부실 적발로 중단
브라질 뉴스 5 건	• 브라질 대선 여론조사에서 룰라 우위 위협, 시장 상승 ↳ 어제 Nexus 설문(BTG Pactual) — 볼소나루 46% vs 룰라 45%(오차범위 ±2%), 역대 조사 중 처음으로 볼소나루 우위 ↳ Quaest 설문(Globo)에서는 볼소나루·룰라 각 41%로 동등 ↳ 브라질 주식 +1.4~2.0%, 라틴아메리카 통화지수 +0.5~0.7% 상승 • 라틴아메리카 상품가격 강세 — 유가·구리 사상 최고 ↳ 구리 사상 최고가 경신 ↳ 원자재 수출 주도국 중심 주식·통화 상승 견인 • 칠레·콜롬비아 8 월 물가 지표 예상 상회 ↳ 칠레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 웃돌, 중앙은행 결정과 동시 발표 ↳ 콜롬비아 12 개월 누적 물가지수도 예상 상회 • 브라질 대법원 위기 심화 — 대법관, 연방경찰청장 정직 명령 ↳ 대법관 André Mendonça, 연방경찰청장 Andrei Rodrigues 에 대한 정직 명령 발령 ↳ 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의 정보기관 보고서 공개 관련 논란이 배경 • 브라질 중앙은행 경제전망 — 2026 년 물가 5.00%, GDP 1.93% 성장 ↳ 2026 년 누적 소비자물가(IPCA) 5.00%, 2027 년 4.29% 예상(전월 대비 변화 미미) ↳ 기준금리(Selic) 2026 년 말 13.75%, 2027 년 말 12.00% 수준 유지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